



29일 광주 송정역 주차장에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가운데 이용객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호남선 KTX 개통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 이용자 불편사항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용객 하루 1만명 몰리는데 복합환승센터 3년째 제자리



상 미완의 과제들

호남선 KTX 개통 1주년(4월1일)을 앞두고 29일 찾아가 광주 송정역은 광주와 서울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만들어 주는 관문으로서 수많은 인파가 찾아오고 있지만 이용자 불편은 여전했다. KTX가 일 평균 46회 오가면서 매일 1만명을 웃도는 탑승객이 몰려들지만 이를 감당할 만한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이용객들이 꼽는 광주 송정역의 문제는 크게 3가지다. 턱없이 비좁은 주차장과 화장실, 연결 교통편 부족 등이다. 송정역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 3000명과 1만 5000명 선이지만, 주차장 공간은 겨우 390면 뿐이다. 이는 KTX개통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당장 평일인 이날만 하더라도 주차장이 꽉 차면서 열차를 타려고 역사 주차장에 진입했던 운전자가 차를 되돌려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런 상황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 코레일 측도 주차 공간 부족을 인정하고 승용차 200대를 추가로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광주 송정역 최대 현안은 주차장·화장실·연결교통 부족 광주역 활성화도 해 넘길 듯

계획을 세웠지만 1년째 진척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광주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착공은커녕 아직 부지 사용 문제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해당계획에는 1600대를 세우는 지하주차장 설립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2014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이 사업은 담보상태다. 광주시는 2013년 7월 서희건설 컨소시엄(서희건설 60%, 교보증권 30%, KT10%)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예초 총사업비 5000억원, 지상 11층 규모로 구상된 사업계획은 네 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쳐 사업비 2480억원, 부지 1만 7000㎡,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로 축소됐다.

주차공간 부족과 함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화장실 문제다. 1층과 2층에 남녀 화장실이 각각 1개씩 총 40개(남 8·여 32)의 대변기가 있지만

열차에서 승객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2층 화장실 입구에는 기다란 줄이 늘어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연결 교통편과 관련해서도 이용자 일부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금·토요일 막차(새벽 12시11분) 도착 시각에 맞춰 한 차례 심야 버스를 늘리고 나머지는 밤 11시까지 운행하는 전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KTX가 오가지 않아 침체하고 있는 광주역 활성화 사업은 해를 넘겨도 결실을 보기 어렵게 됐다. 광주역 활성화 문제 역시 해당부지의 소유권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서 광주시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20여만 ㎡ 부지를 직접 사들이 개발할 여력이 사실상 없다.

시는 최근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기로 해 사실상 광주역 활성화 방안 찾기가 유희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역과 송정역 문제는 본질적으로 부지의 소유권이 광주시가 아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더민주 “野 분열·호남 자민련 막아달라” 국민의당 “野 재편·호남 주도 정권교체”

선택 4·13 D-14

2野 광주시당 선대위 발족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 민심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연일 정면충돌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더민주의 국민의당을 ‘호남 자민련’으로, 국민의당은 더민주를 ‘친문(친 문재인) 패권정당’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비판 수위가 거칠어지고 있다.

더민주 광주시당 선대위책임자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에서 끝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구대 정치인들이 발호하면서 ‘호남 자민련’을 획책하고 있다”며 “광주야 야권 분열의 오물을 뒤집어 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선거 막바지에 가면 수도권에서 한 석도 못하는 ‘5% 수준’ 국민의당으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더민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민주의 수권정당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국민의당이 성공해도 ‘호남 자민련’에 머물러 정권 창출에 별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 전채배 공동대표는 같은 날 열린 광주선대위 발대식에서 “이

미 더민주는 수권능력과 국가비전을 상실한 채 특정 계파의 패권만 강해지고 있다”며 “야권재편을 통해 내년 호남 주도의 정권교체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이어 “더민주의 운명은 지난 총선·대선으로 끝났다”며 “호남은 표만 주고 이용당했고 정치적 하청기지가 되고 말았다”고 규정했다. 더민주를 사실상 친문 패권정당으로 규정된 뒤, 야권 재편을 통해 호남 정치의 종속 구도를 타파하고 차기 정권 창출에 호남이 핵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더민주의 2중대 하러면 창당도 안 했다”며 “(야권 분열 정국) 구도를 만든 것은 사실상 더민주,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아니었나”고 더민주에 각을 세웠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야권 연대에 대해 “야권연대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오히려 김종인 더민주 대표”라며 당 차원의 선거 연대 불가 입장을 나타낸 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상당히 적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안 대표는 이어 총선 목표인 40석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 대표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능 한국사 필수 지난해 수준 출제

교육부, 2017 수능 계획 확정

2017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출제할 것’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능능력시험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출제 기준은 작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7학년도 수능은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어·수학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폐지되고 국어는 공통으로,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가/나형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한국사를 제외한 9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은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7일 교부된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6월 2일 모의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황금박쥐’ 120여 마리 무안 폐광에 서식

멸종위기종... 국내 전체 3분의 1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붉은 박쥐, 이른바 ‘황금박쥐’ 120여 마리가 무안의 한 폐광에서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환경부, 멸종위기동물 보호협회 등은 이 가운데 일부가 함평에서 서식지를 옮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전남도, 환경부 등에 따르면 무안의 한 폐광에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황금박쥐 300여 마리 중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120여 마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대규모 황금박쥐 무리가 발견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환경부는 최근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멸종위기 동물 보호협회 등은 멸종위기종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안의 한 폐광을 찾아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황금박쥐 121마리와 관박쥐 100여 마리가 동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동면기가 끝나는 5월께 정밀 조사를 통해 암수 개체 수를 구분하고 식별표 등을 부착해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안 폐광은 외부의 위협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굴 자체가 함몰되면서 여러가지 구조나 환경이 서식, 동면하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며 “멸종위기종 보호구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남영전구 수은중독 사고 1년 ▶6면



사람이 문화자산 - 김영중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인산의학 계승자 김윤세 교수가 ‘자연에서 찾은, 몸을 살리는 놀라운 지혜’를 전합니다.

자연치유, 대체의학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나가고 있는 인산의학의 계승자 김윤세 교수의 광주 특강에 초대합니다. 4월 1일, 실로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자연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살리는지 그 깊은 지혜와 희망을 얻어가십시오.

[암·난치병 이기는 비법 공개] “자연의 힘이 나를 살린다” 인산의학 계승자 김윤세 교수의 자연치유 특강

주제 “자연의 힘이 나를 살린다”
강연 김윤세 교수 (인산가 회장)
일시 4월 1일(금) 오후 2시
장소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동 금호터미널
2층 동산아트홀 (유스케어)
문의 및 접수 062)363-9585 (광주지점)



월간 인산医학을 구독신청 하십시오!
내 병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연치유 및 대체의학에 관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1년만 구독하셔서, 그 내용을 실천하시면 분명 새로운 희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산의학 구독신청 : 1577-9585